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49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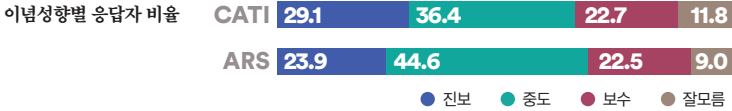
제64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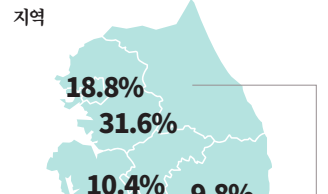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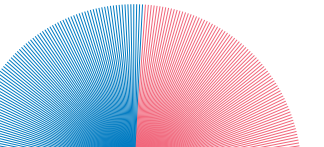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4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4	100.0%	1,014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성별	남성	512	50.5	502	49.5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2	49.5	512	50.5	1.02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74	17.2	164	16.2	0.94				
응답률	10.1% [총 통화시도 10,008명]			30대	159	15.7	151	14.9	0.95				
조사기간	2023년 12월 01일 ~ 12월 02일(2일간)			40대	190	18.7	183	18.0	0.96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85	18.2	197	19.4	1.06				
				60대	167	16.5	173	17.1	1.04				
				70세 이상	139	13.7	146	14.4	1.05				
			지역	서울	191	18.8	190	18.7	0.99				
				인천·경기	320	31.6	324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5	10.4	107	10.6	1.02				
				광주·전라	103	10.2	98	9.7	0.95				
				대구·경북	99	9.8	98	9.7	0.99				
				부산·울산·경남	153	15.1	153	15.1	1.00				
				강원·제주	43	4.2	44	4.3	1.02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6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6	100.0%	1,006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30	52.7	499	49.6	0.94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76	47.3	507	50.4	1.07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만18~29세	120	11.9	162	16.1	1.35				
응답률	2.4% [총 통화시도 42,249명]			30대	145	14.4	151	15.0	1.04				
조사기간	2023년 12월 01일 ~ 12월 02일(2일간)			40대	194	19.3	181	18.0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6	19.5	0.92				
				60대	187	18.6	173	17.2	0.93				
				70세 이상	146	14.5	143	14.2	0.98				
			지역	서울	187	18.6	187	18.6	1.00				
				인천·경기	324	32.2	322	32.0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6	10.5	1.00				
				광주·전라	100	9.9	98	9.7	0.98				
				대구·경북	98	9.7	98	9.7	1.00				
				부산·울산·경남	148	14.7	152	15.1	1.03				
				강원·제주	43	4.3	43	4.3	1.00				

52.7%
남성

47.3%
여성

18.6%

32.2%

10.5%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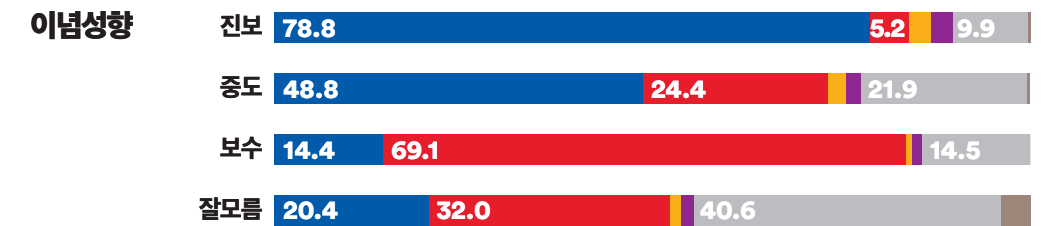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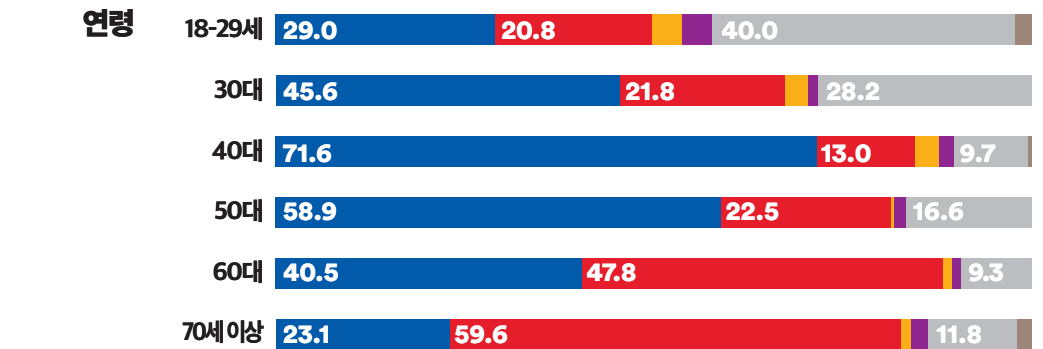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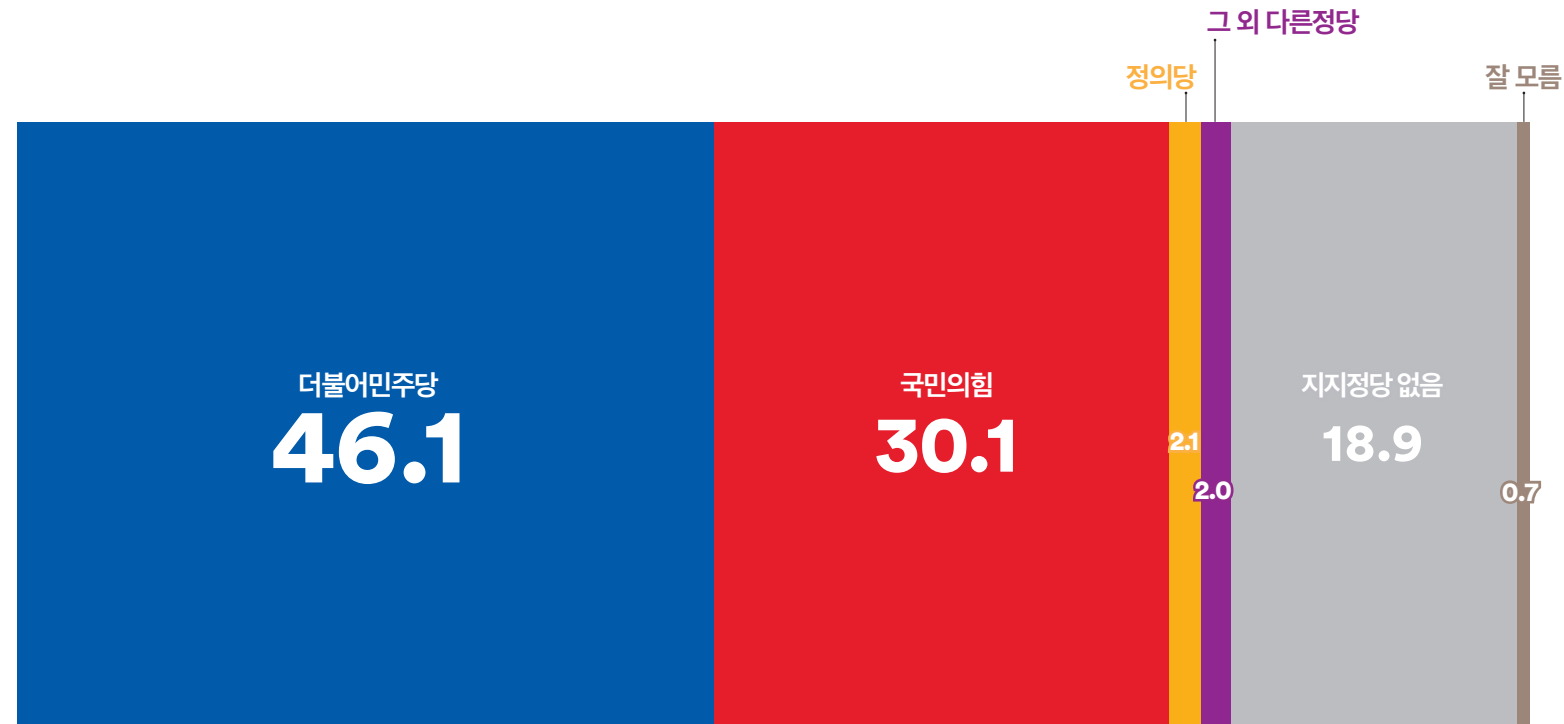
9.9%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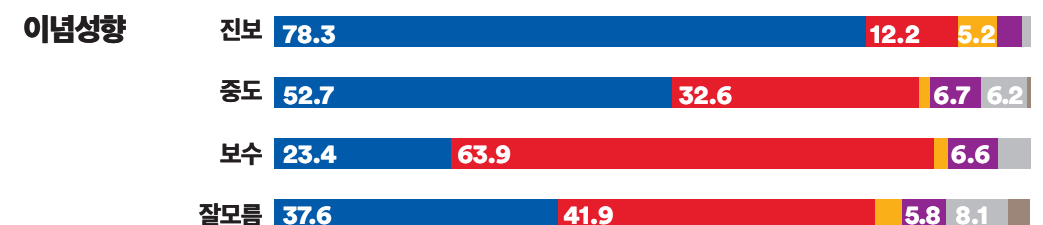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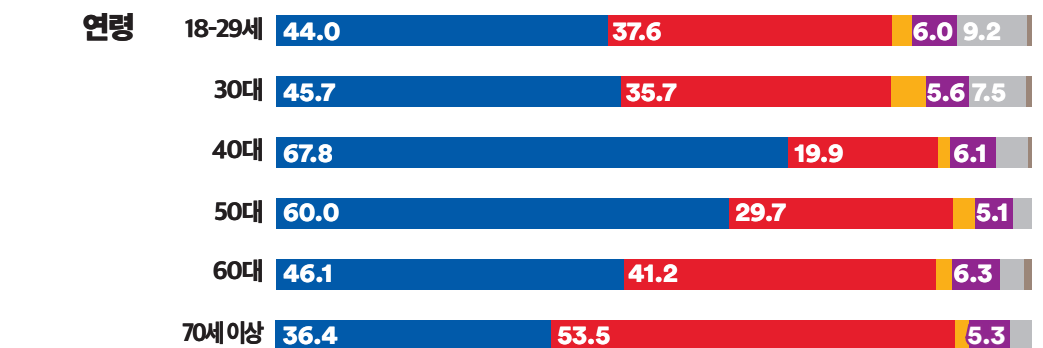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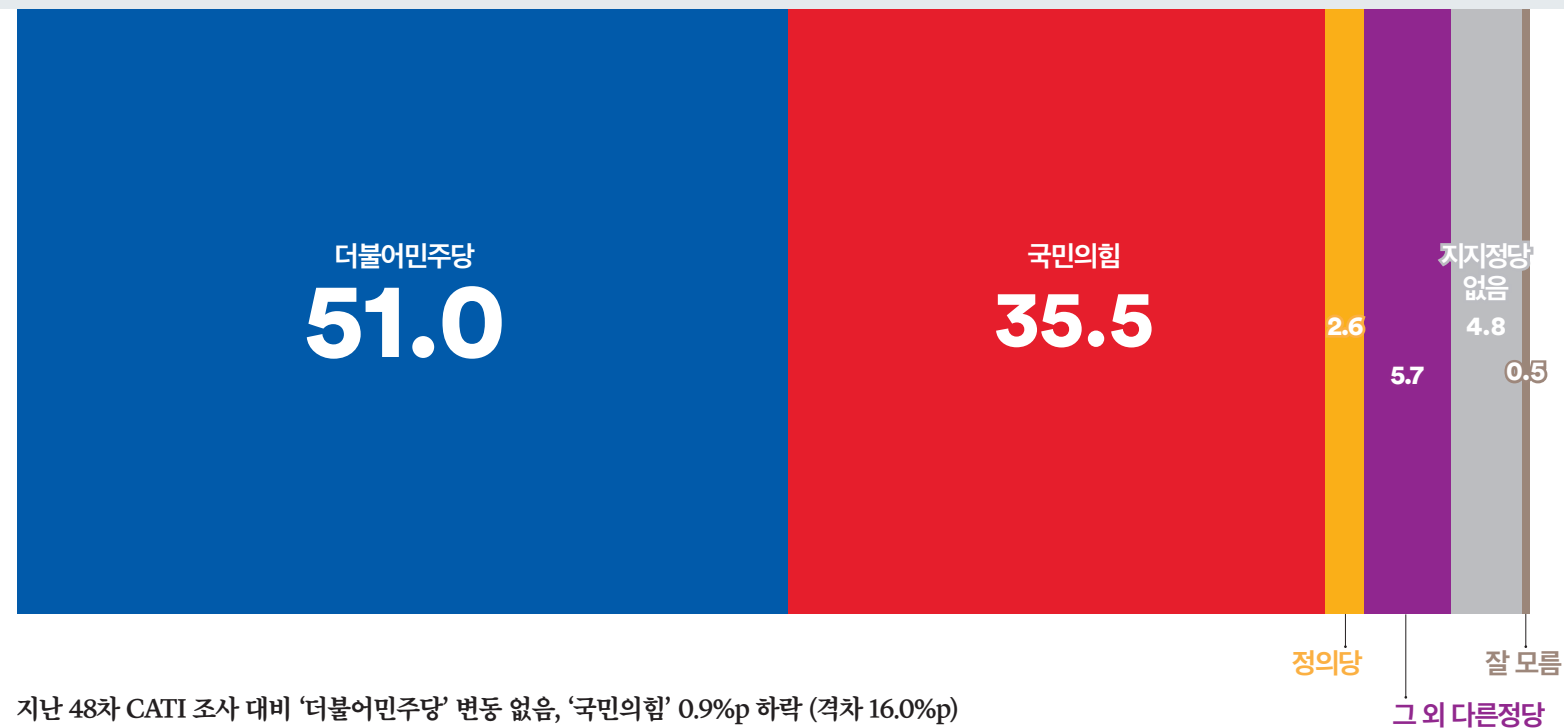
4.3%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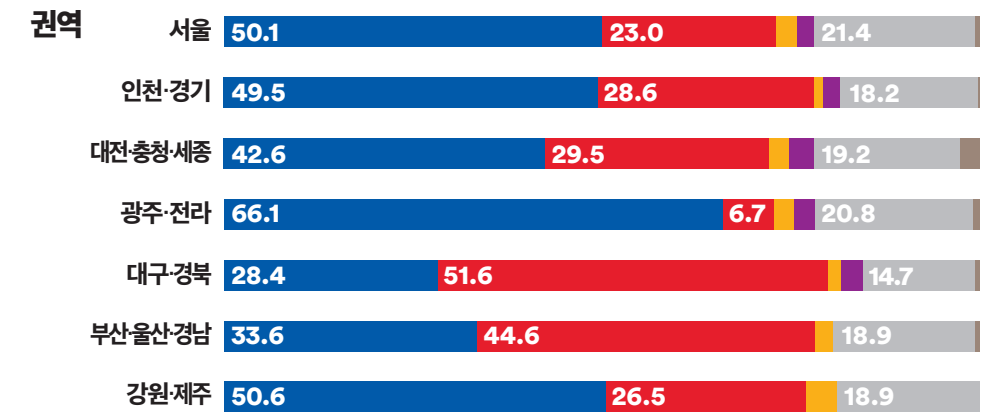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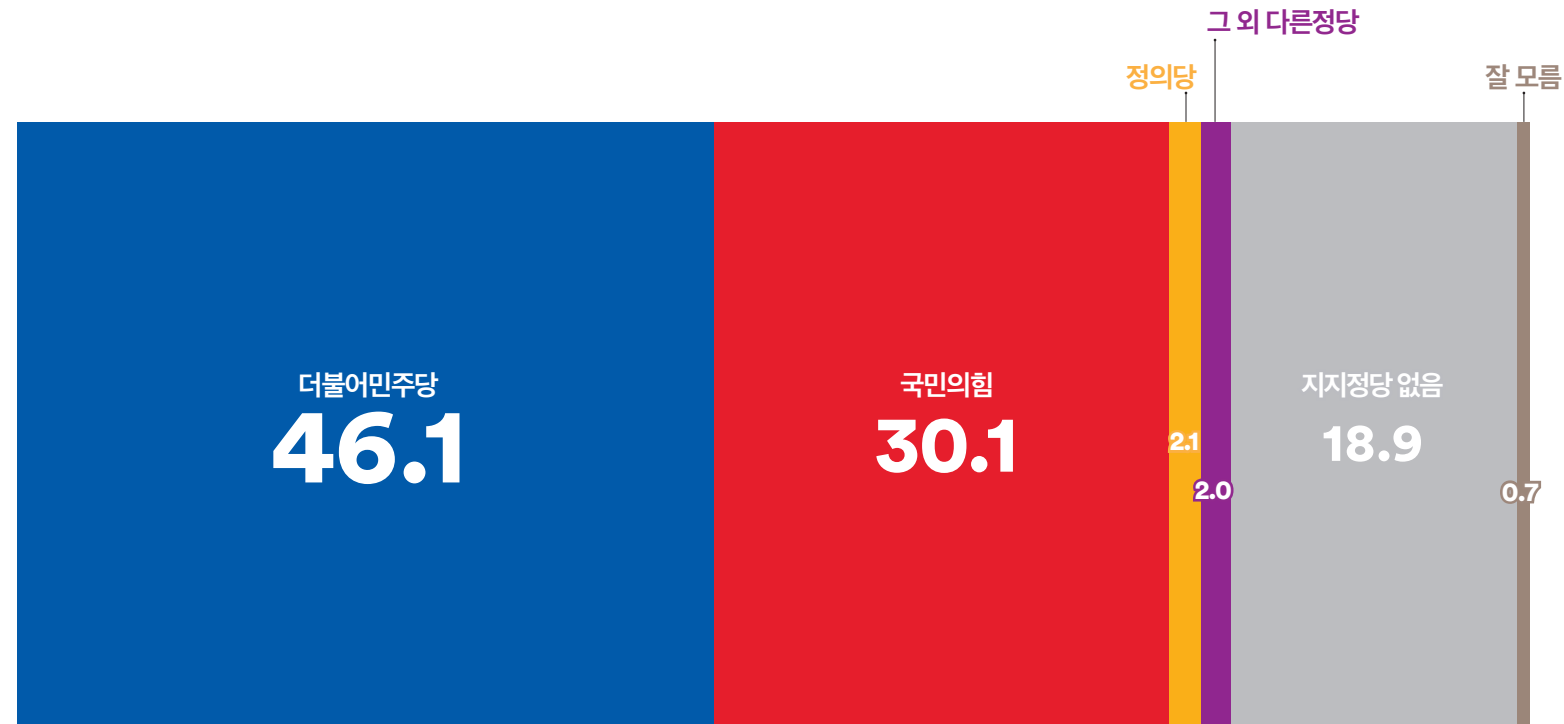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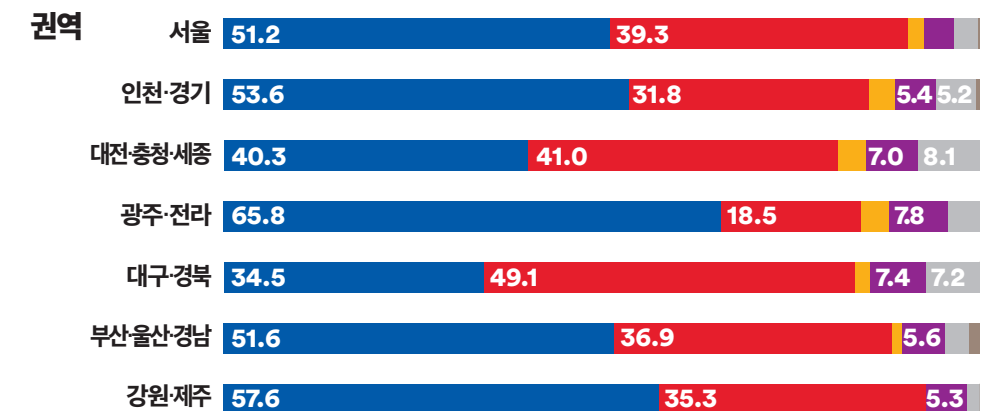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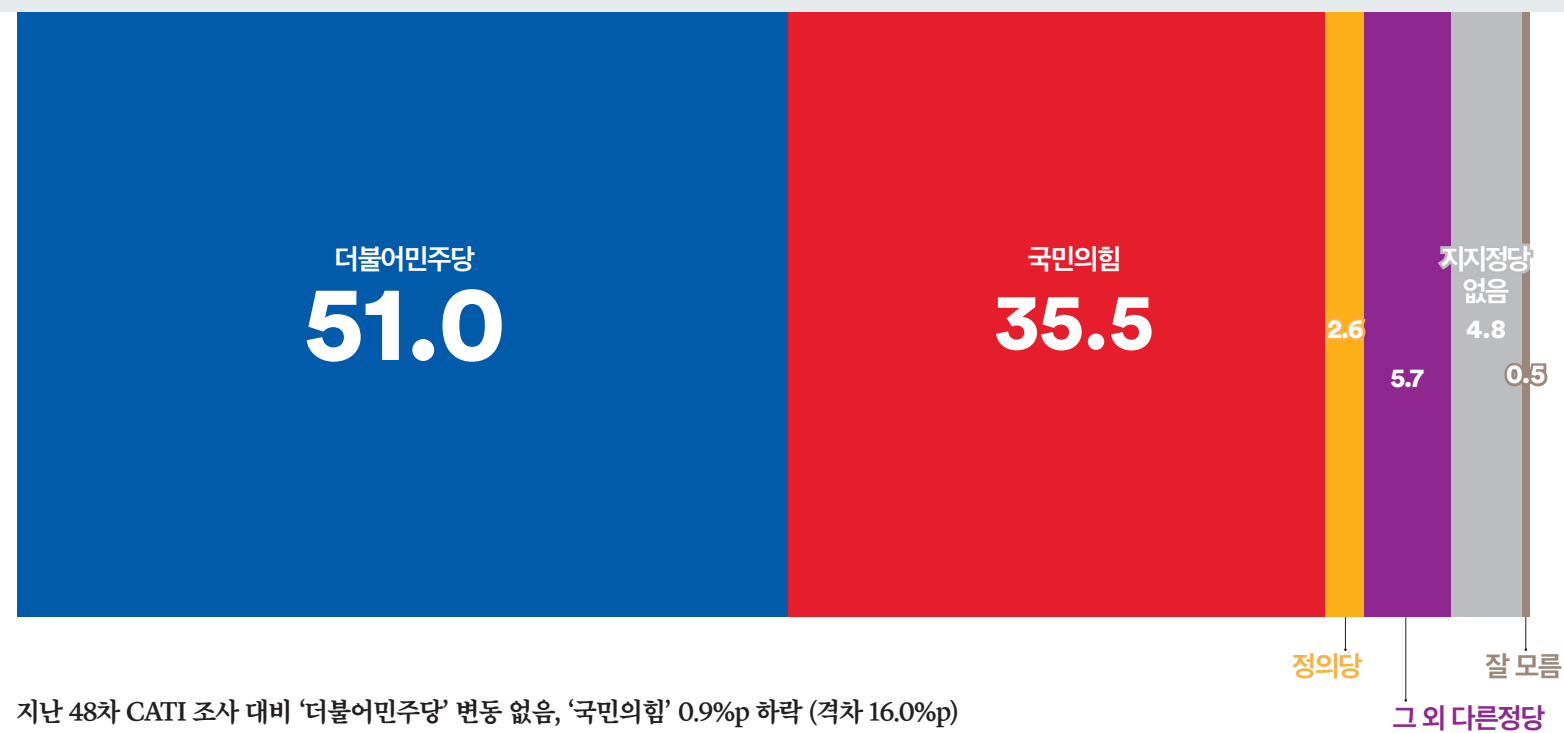
지난 48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변동 없음, '국민의힘' 0.9%p 하락 (격차 16.0%p)
 지난 63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4.4%p 하락 (격차 15.5%p)
 두 조사 모두 경인, 호남권 (CATI 조사는 서울권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40·50대(CATI 30대 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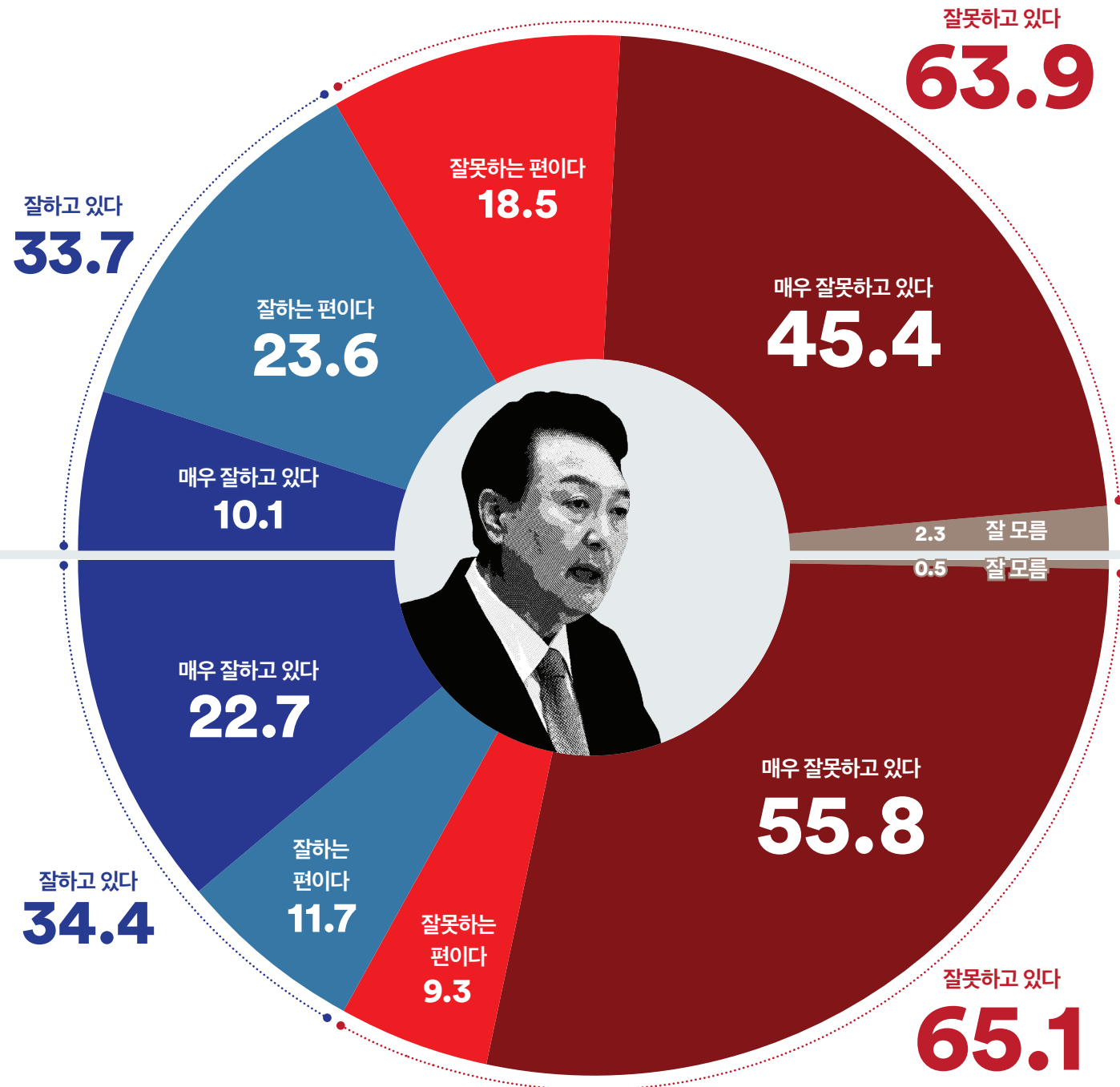


지난 48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변동 없음, '국민의힘' 0.9%p 하락 (격차 16.0%p)
 지난 63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4.4%p 하락 (격차 15.5%p)
 두 조사 모두 경인, 호남권 (CATI 조사는 서울권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40·50대 (CATI 30대 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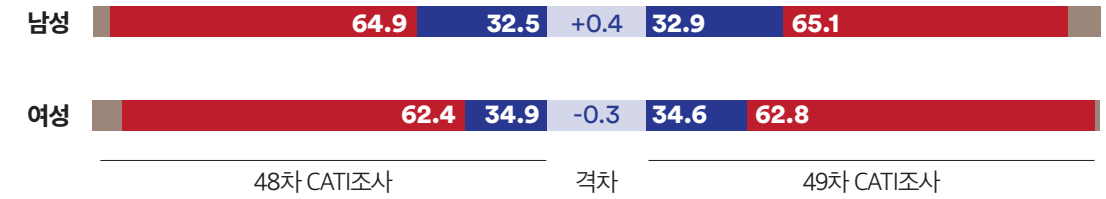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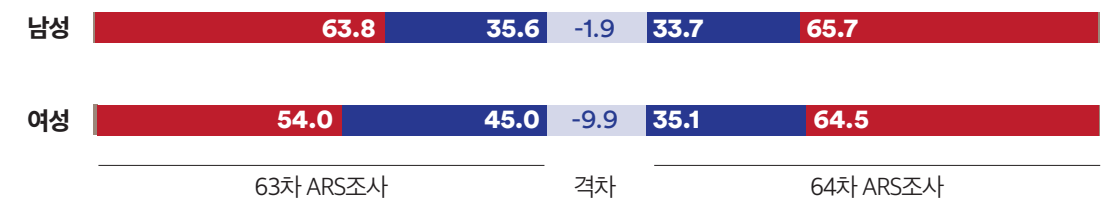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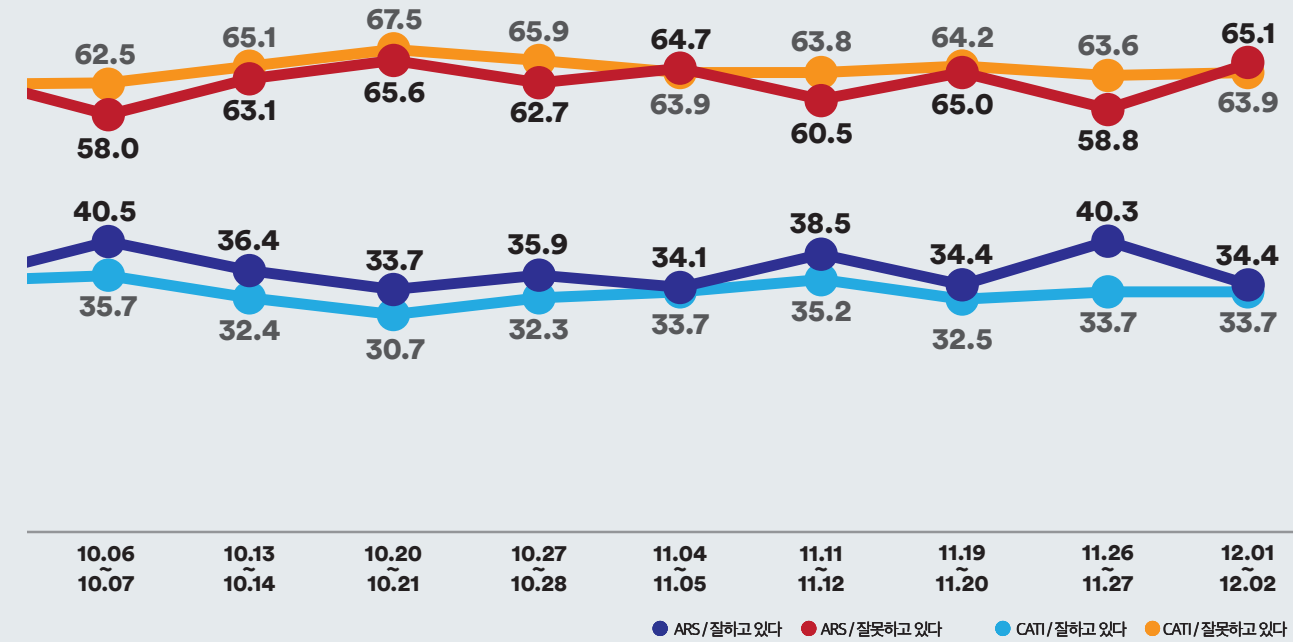
CATI



지난 48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변동 없음, '부정'평가 0.3%p 상승 (격차 30.2%p)
 지난 63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5.9%p 하락, '부정'평가 6.3%p 상승 (격차 30.7%p)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조사에서 42.5%p, ARS 조사에서 36.8%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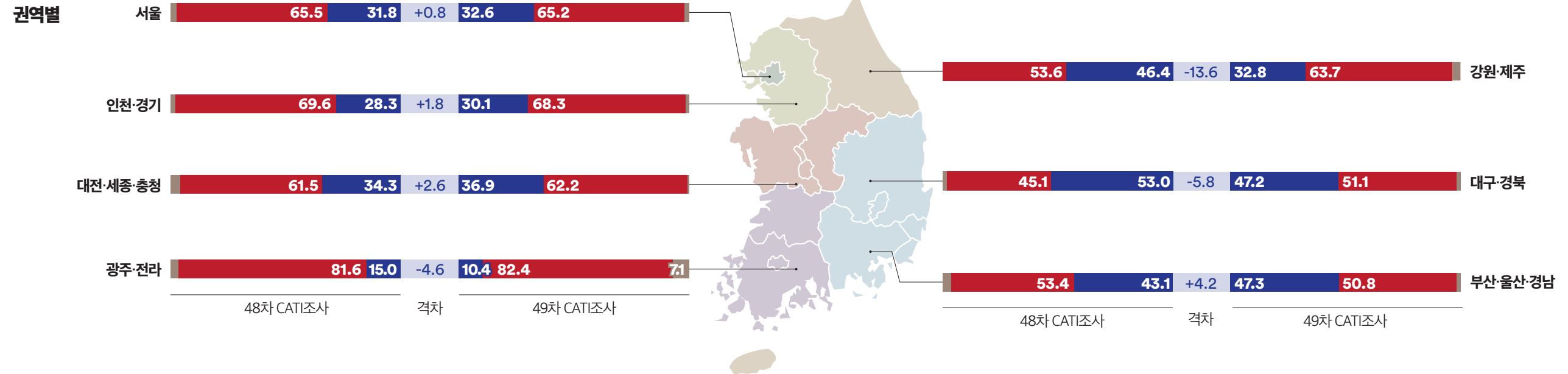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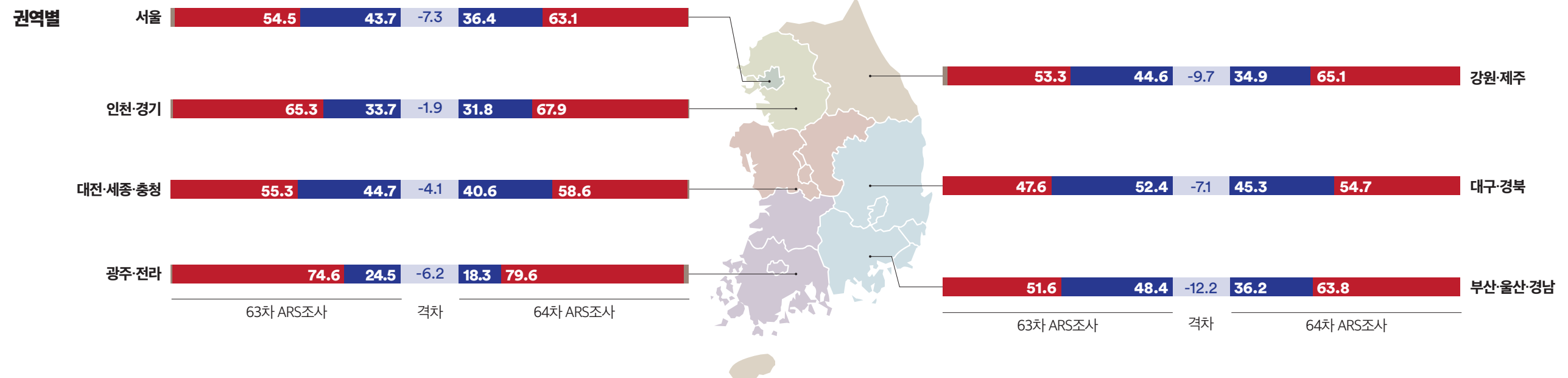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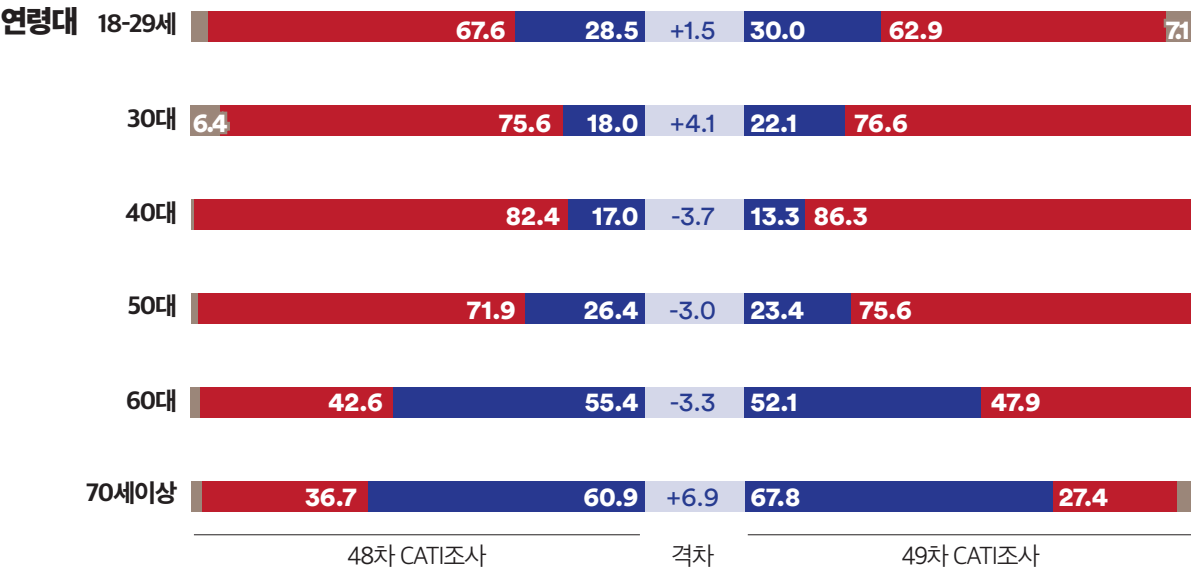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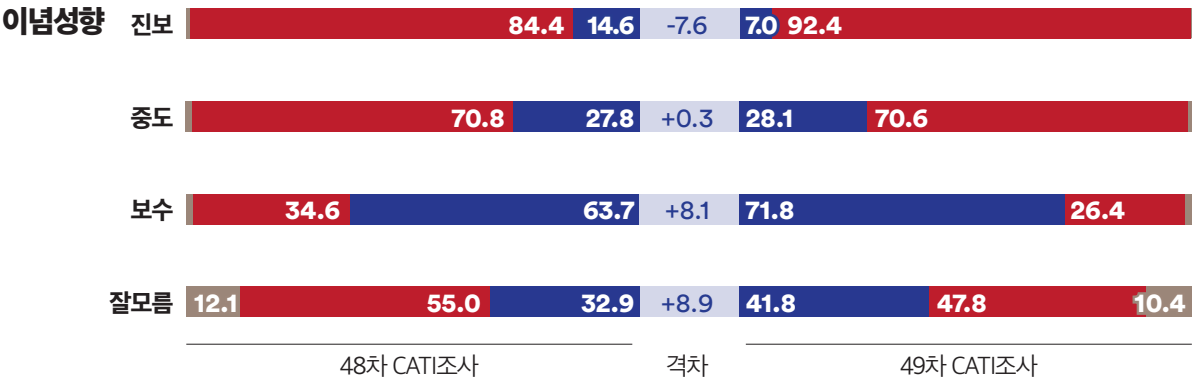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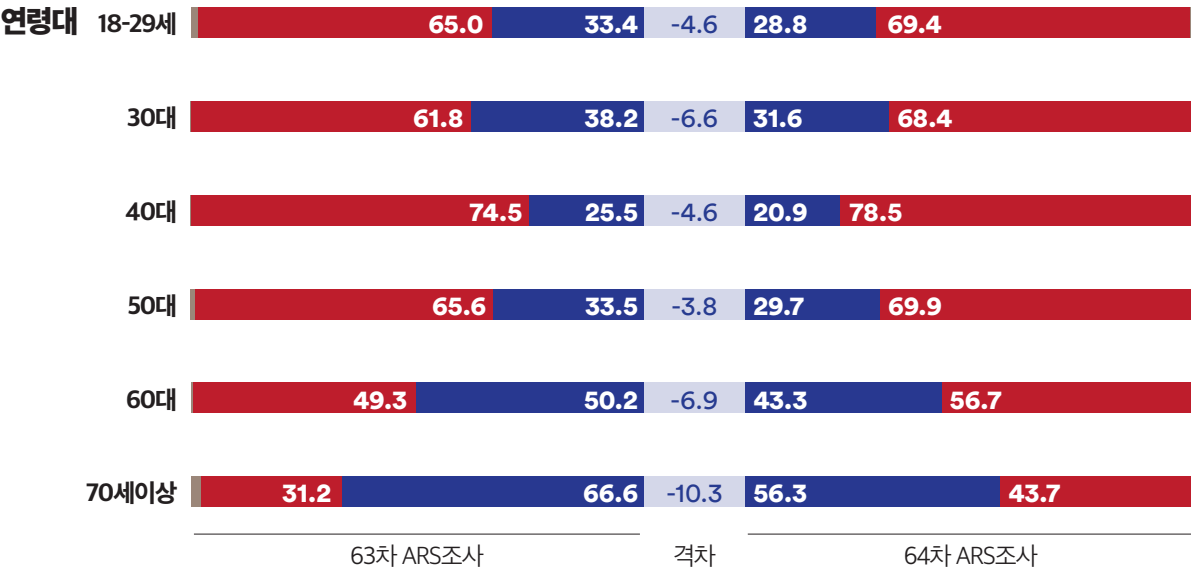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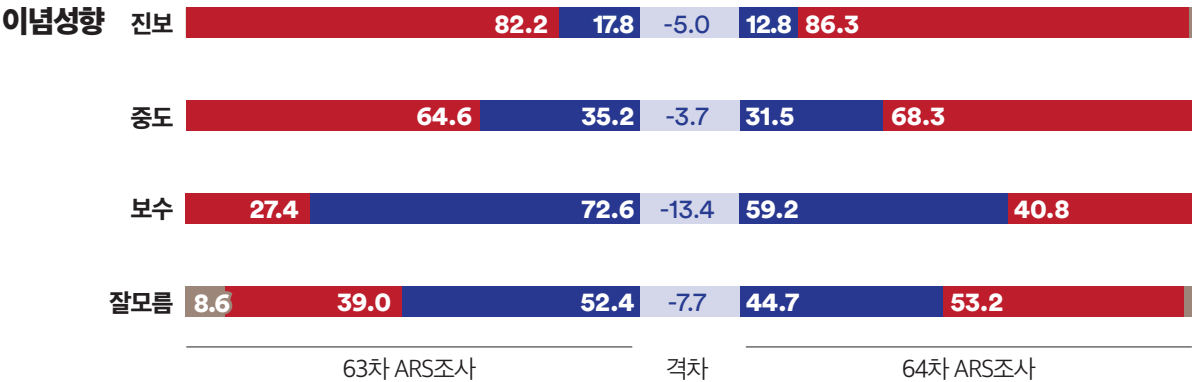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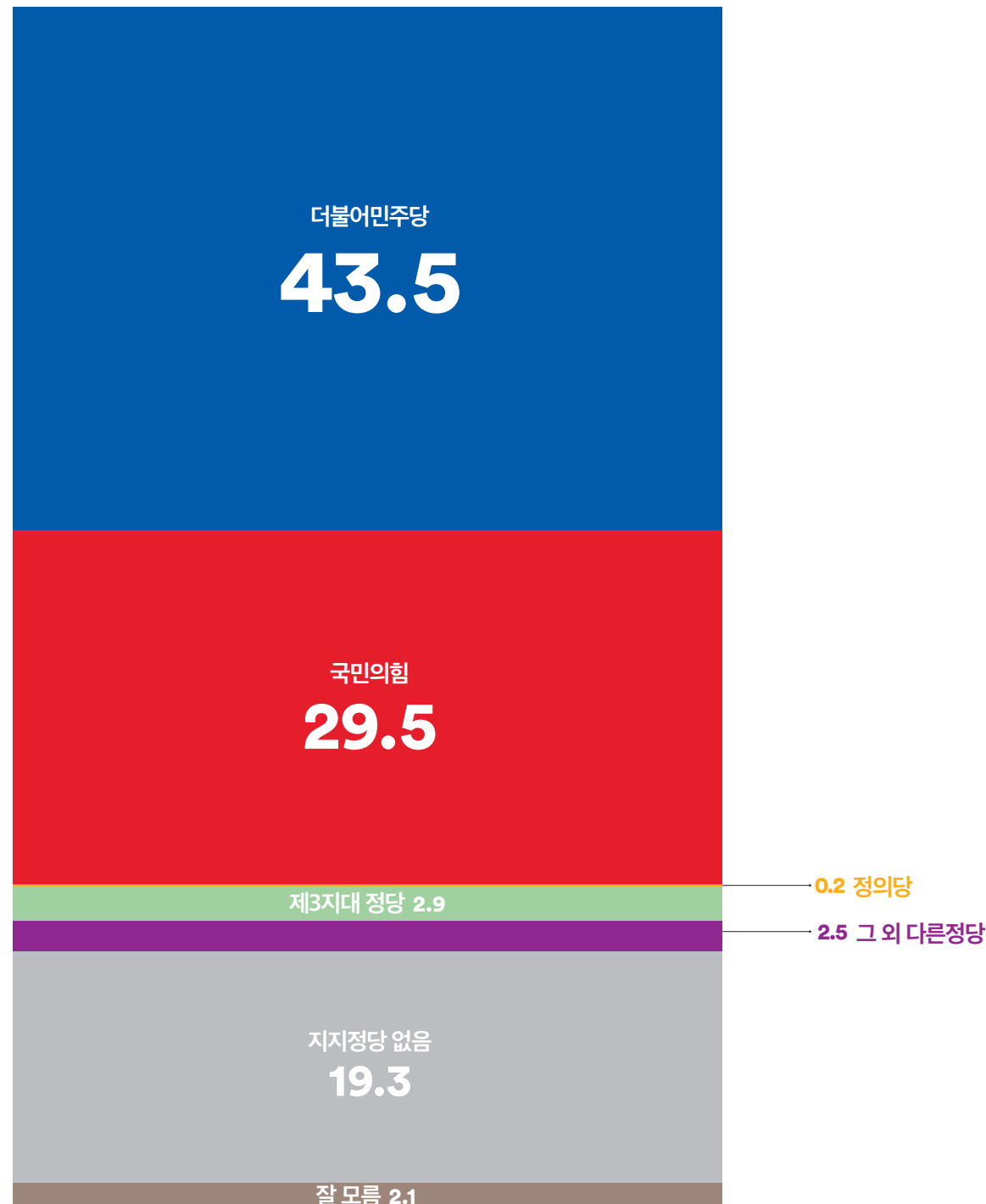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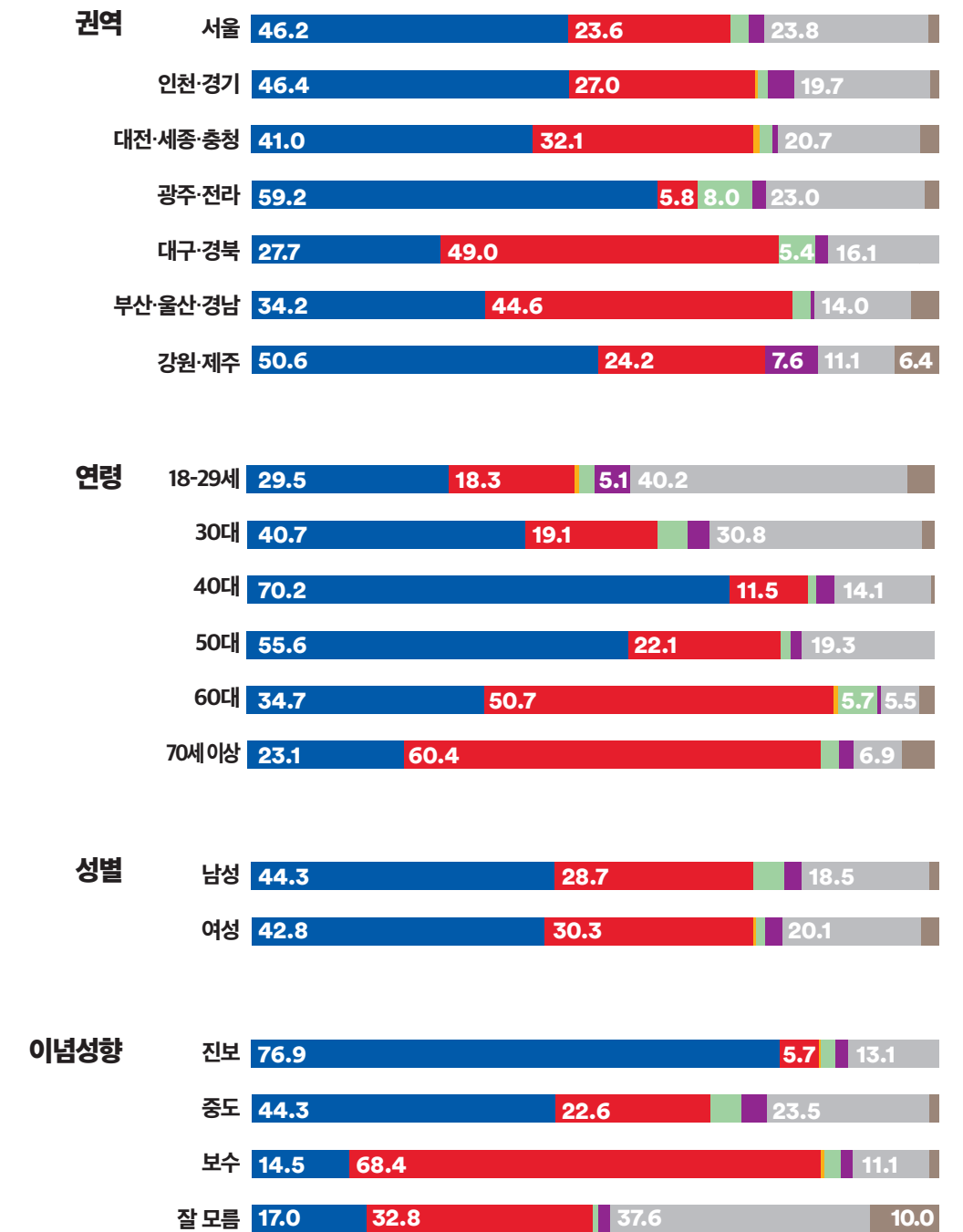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4명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응답, '더불어민주당' 우세 (양당 간 격차 14.0%p)
TK와 PK를 제외한 5개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고,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우세
남·녀 모두, 중도층, 50대 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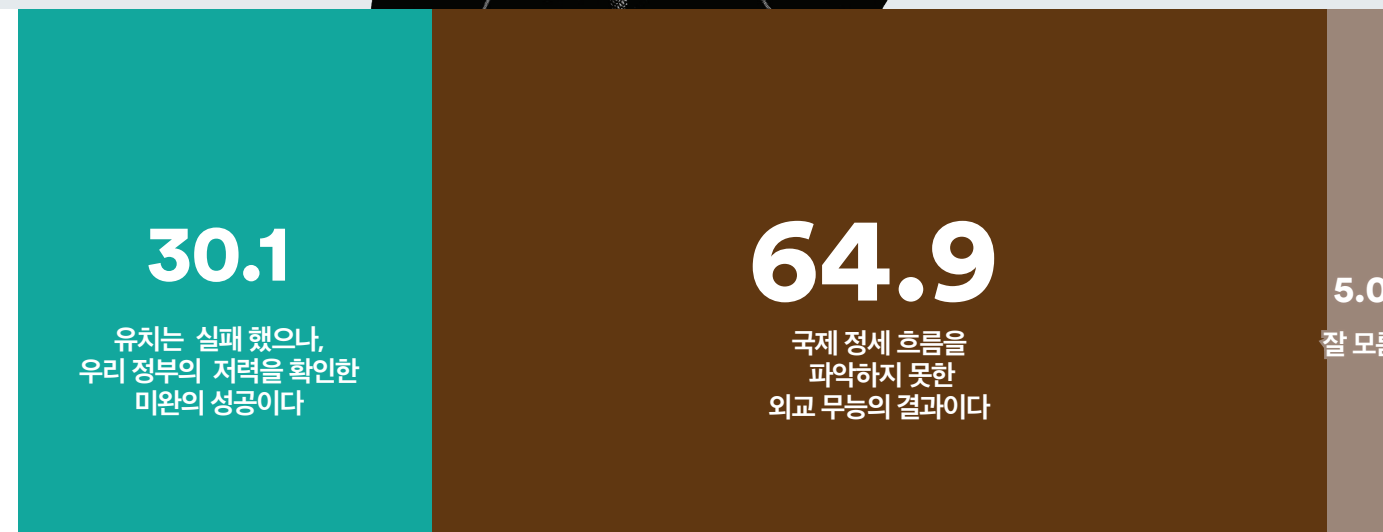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제3지대 정당
 ■ 그 외 다른정당
 ■ 없음
 ■ 잘 모름

Q. 부산 2030 엑스포 유치가 최종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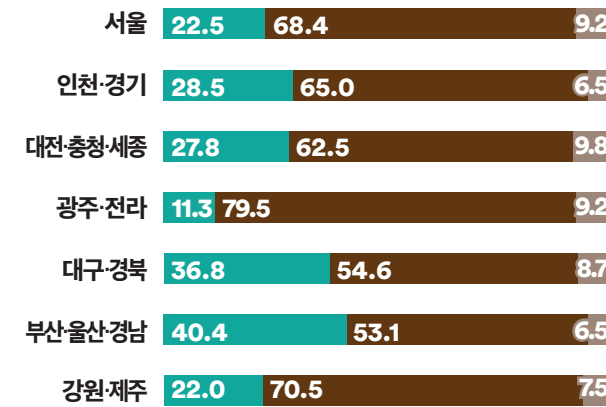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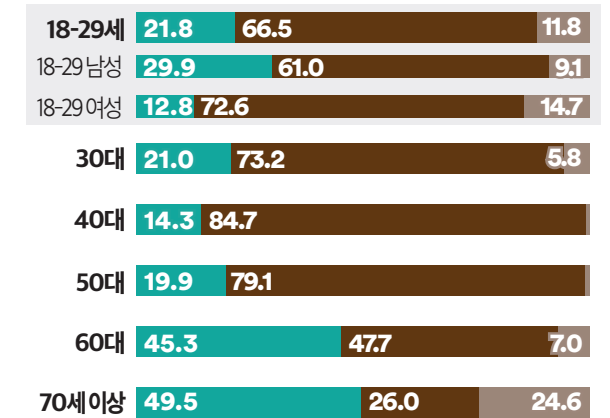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모든 권역에서 '외교 무능의 결과'라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격차: CATI 36.3%p, ARS 34.8%p)
CATI 조사의 TK·PK 권역과 ARS 조사의 TK권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권역에서 '외교 무능의 결과'라는 응답 우세
50대 이하 연령대(ARS는 60대 포함) 모두 '외교 무능의 결과'라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외교 무능의 결과'라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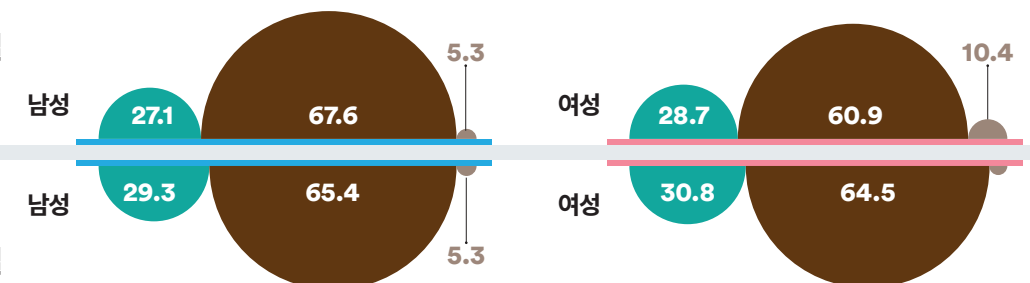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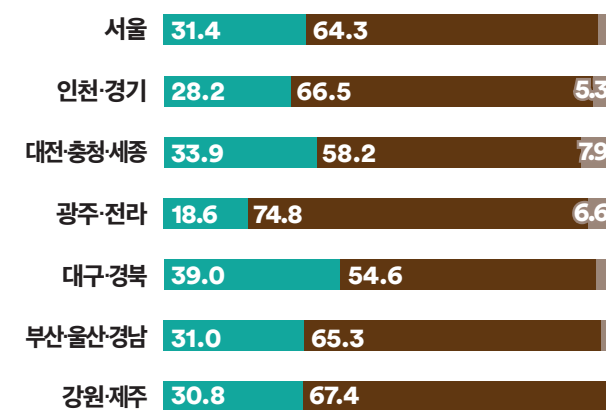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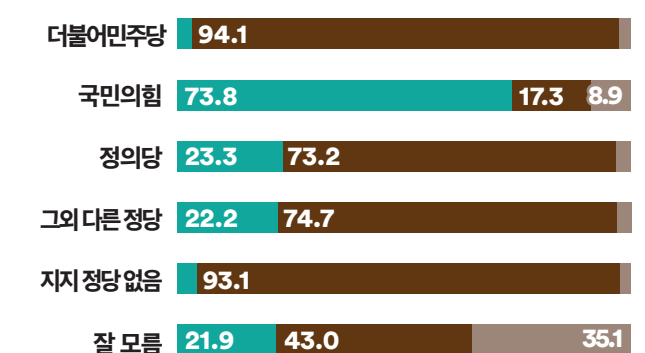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미완의 성공 | 외교 무능의 결과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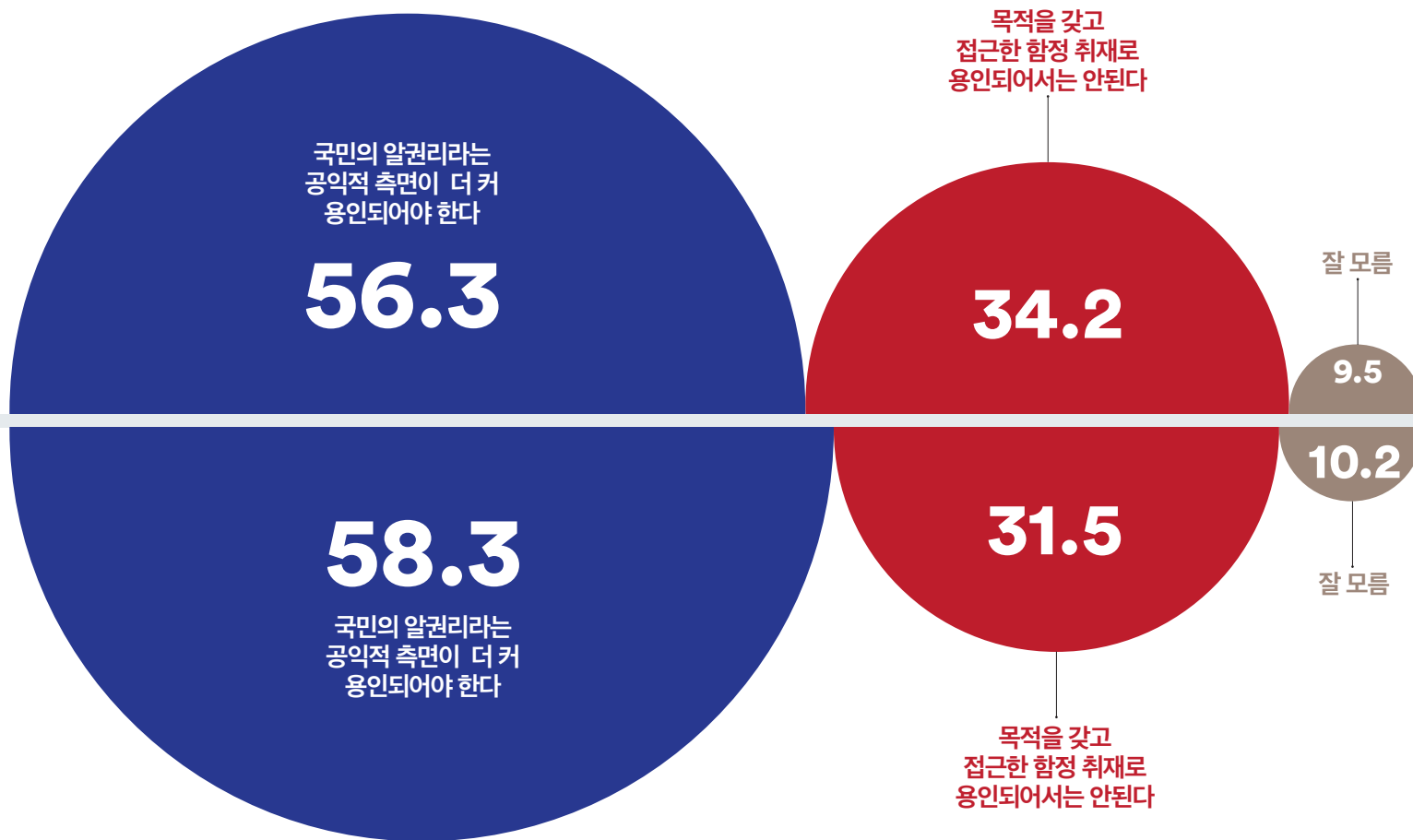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합정 취재 논란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장면이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되는 등 합정 취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합정 취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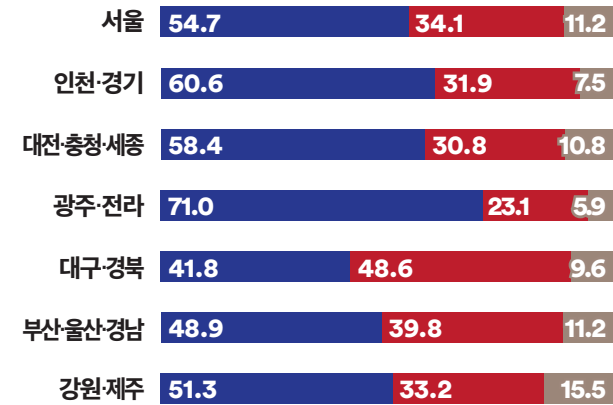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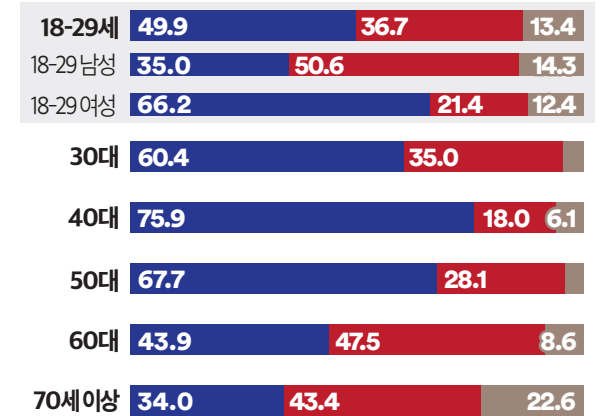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고 응답 (격차: CATI 22.1%p, ARS 26.8%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
 두 조사의 30~50대(ARS 18~29세 포함) 모두 '용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보수층의 31.6%(CATI), 38.2%(ARS), 국민의힘 지지층의 21.9%(CATI), 17.0%(ARS)는 '용인되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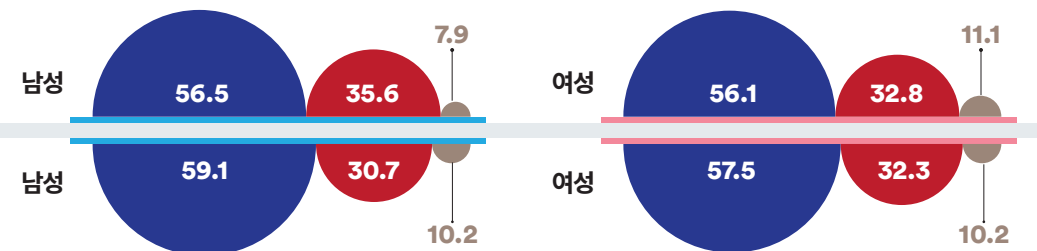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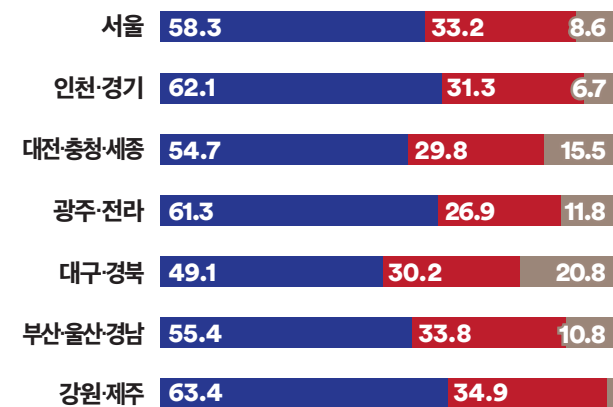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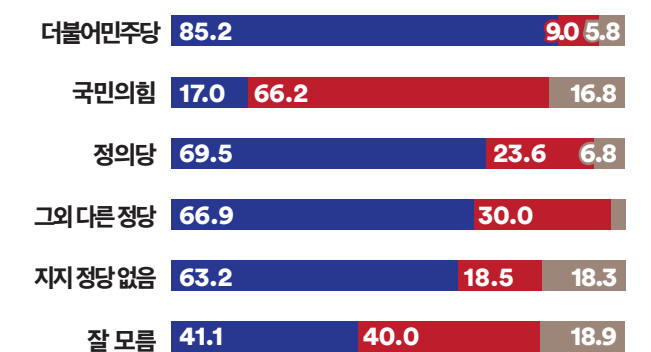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공익적 측면이 더 커 용인되어야 한다 | 합정취재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 모르겠다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선물 수사 필요 여부

Q.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품 가방 선물과 관련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대통령 부인이라도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

68.6

ARS

65.8

대통령 부인이라도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단순 선물이므로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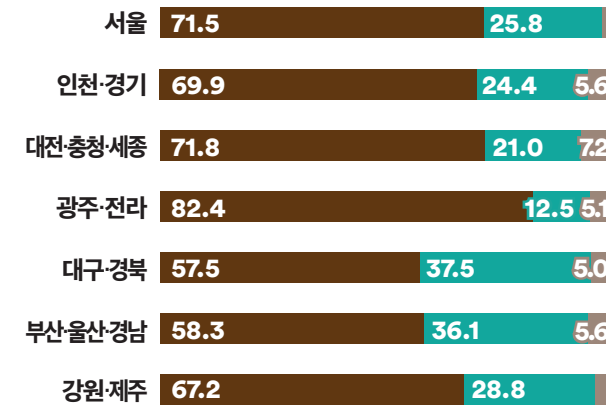
28.1

대통령 부인에 대한
단순 선물이므로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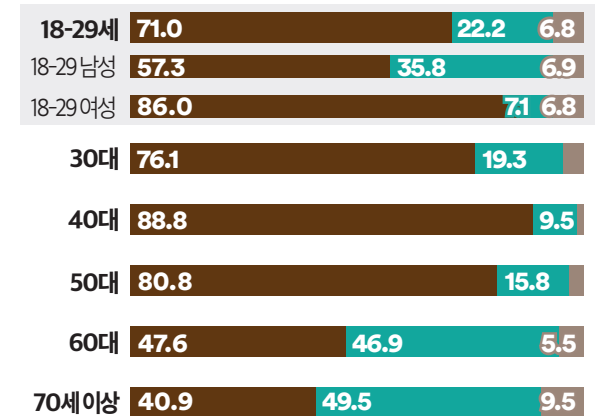
잘 모름
5.1

6.1
잘 모름

권역



연령



성별

남성

69.3

25.8

성별

남성

66.3

28.0

여성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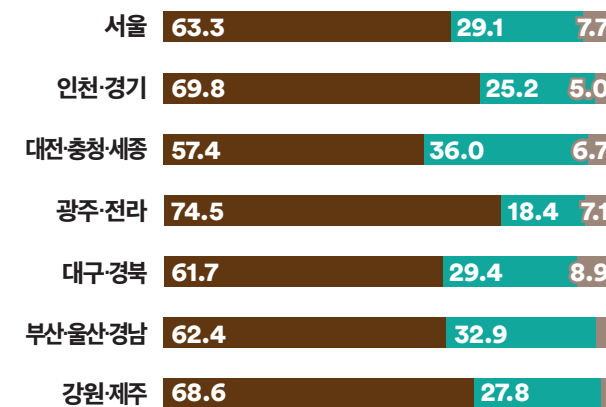
27.0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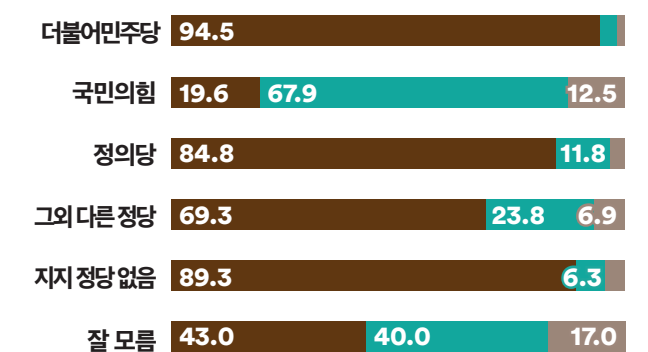
65.3

28.2

권역



정당지지도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 (격차 CATI 42.2%p, ARS 37.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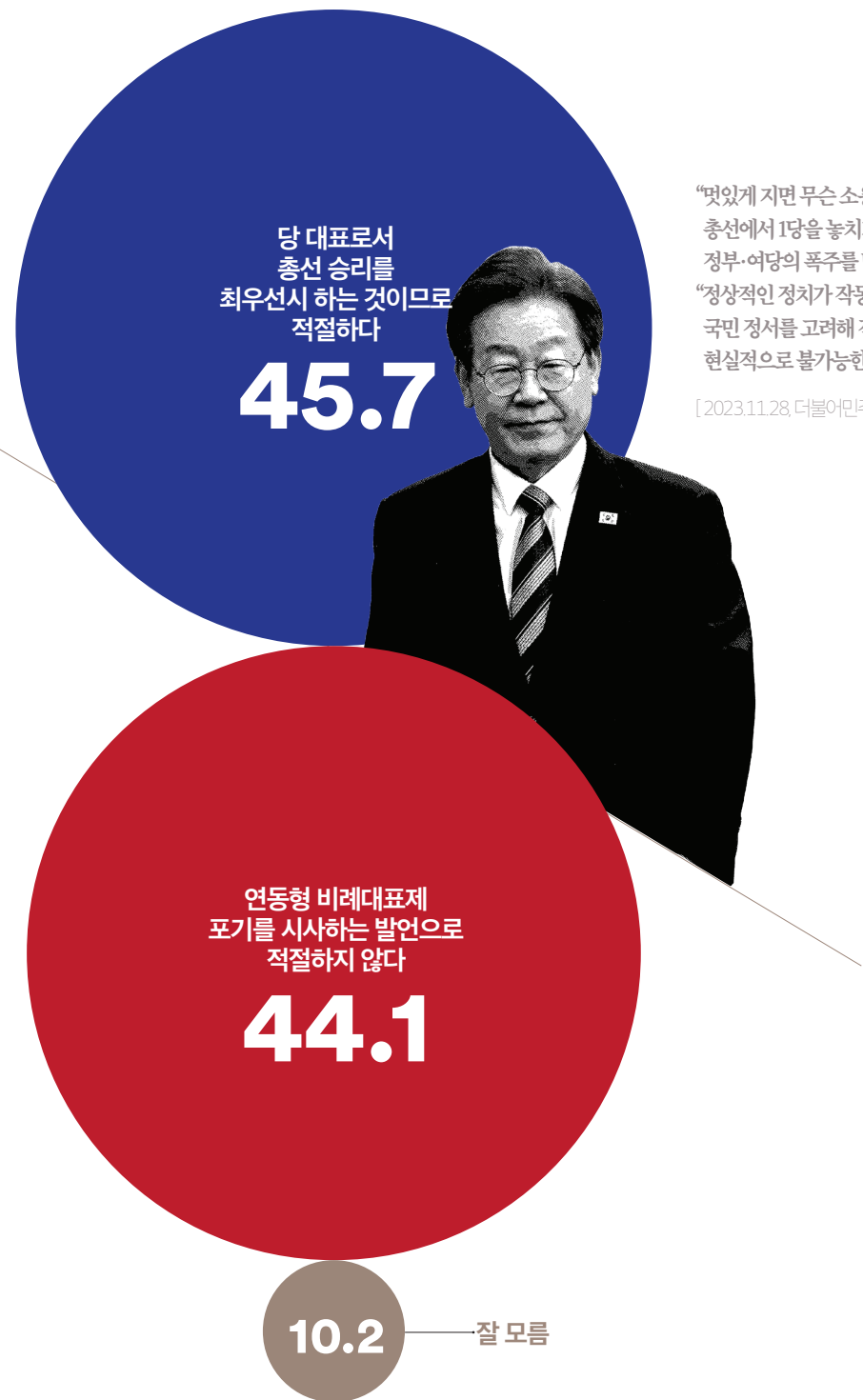
두 조사의 50대 이하(ARS는 60대 포함)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34.1%(CATI), 19.6%(ARS), 보수층의 40.6%(CATI), 42.3%(ARS)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총선 승리가 최우선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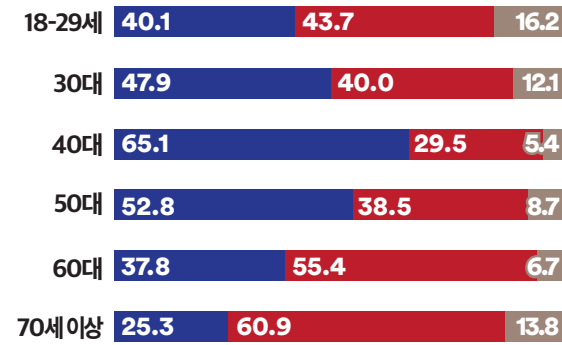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한다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적절하게 타협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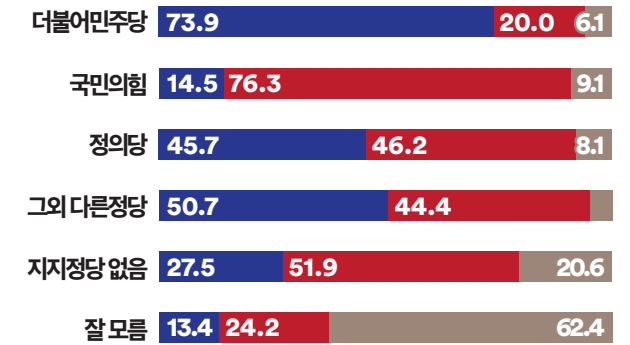
[2023.11.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중]

총선 승리를 최우선시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1.6%p차이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수도권·호남권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앞서고 TK·PK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4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60대이상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중도층에서는 ‘적절’ 46.2%, ‘부적절’ 43.6%로 ‘적절하다’ 응답이 2.6%p 소폭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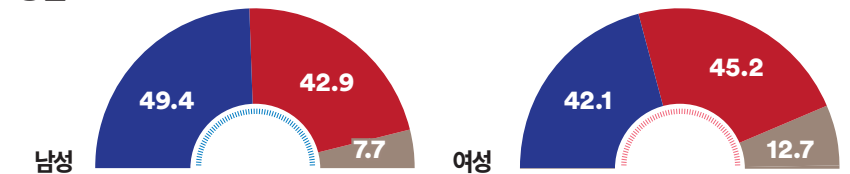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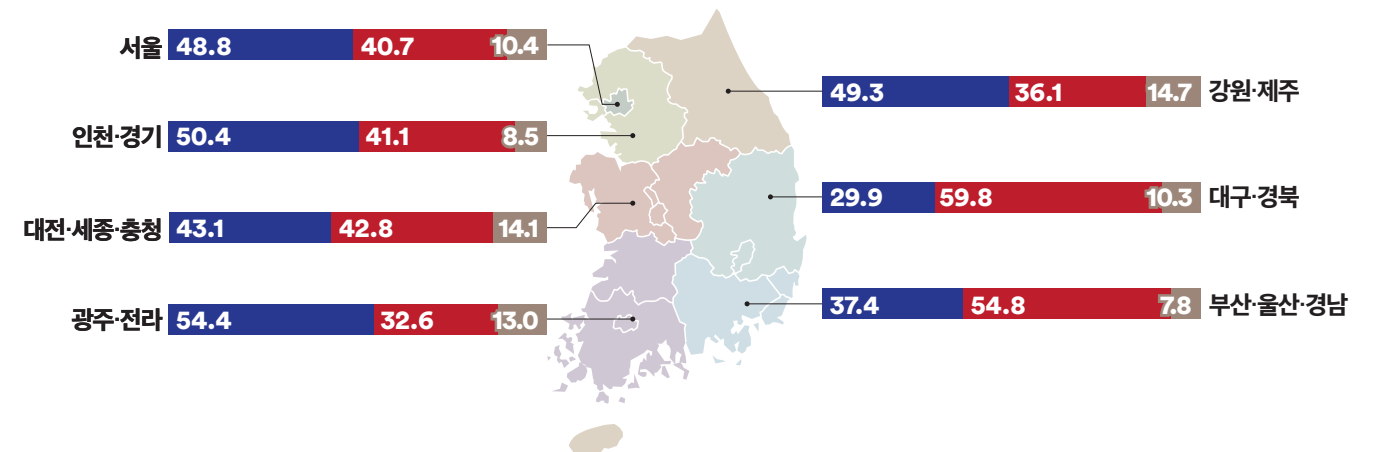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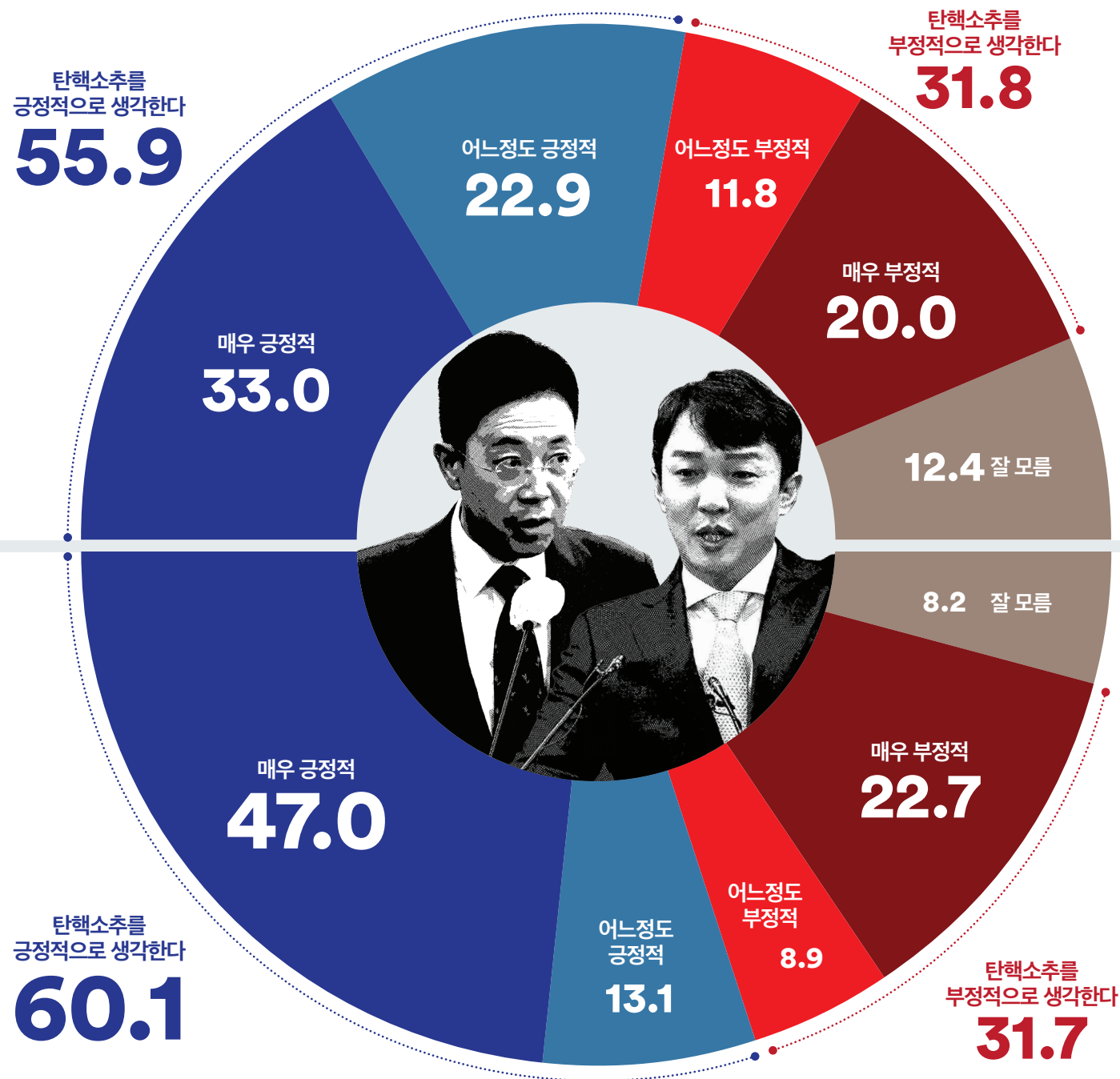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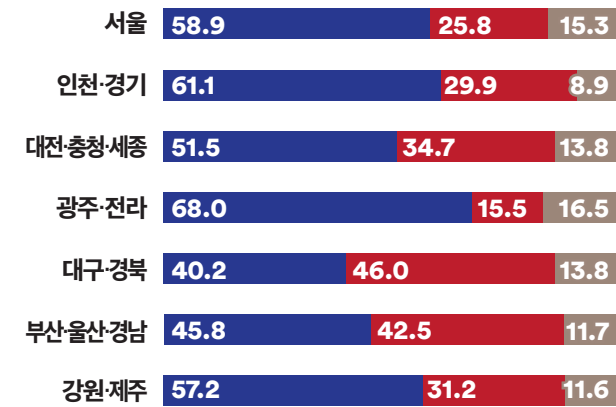
Q.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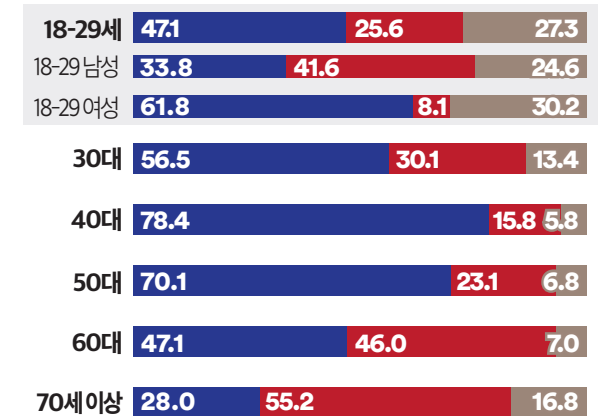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탄핵소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격차 CATI 24.1%p, ARS 28.4%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탄핵소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앞섬
중도층은 조사 방법에 상관없이 '긍정적'이란 응답 우세 (격차 CATI: 26.5%p, ARS: 32.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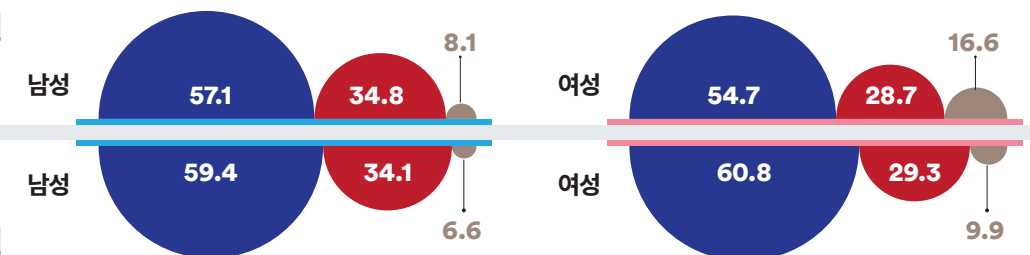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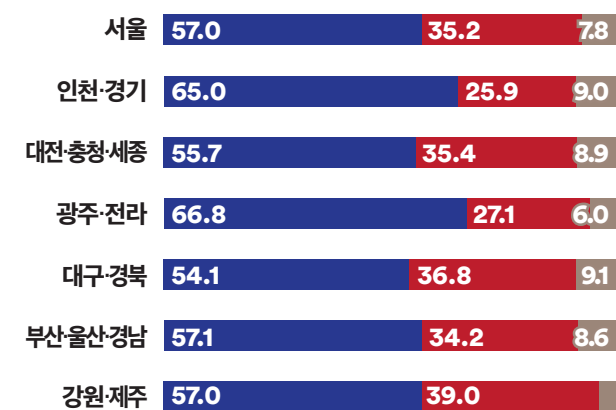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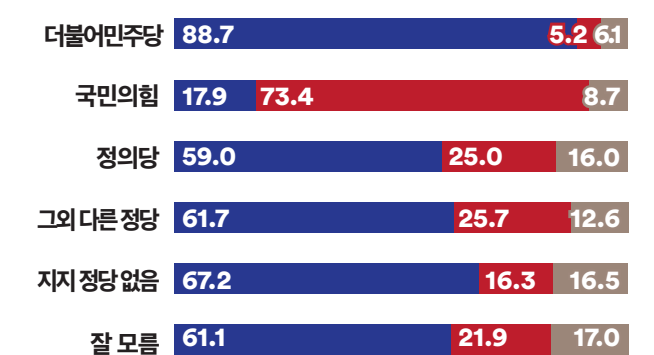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12_02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